

“디자인테마거리·관광벨트 구축해야”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없나

<1-3> 서남동 인쇄거리 대안

인쇄업 경쟁력 없어 패키지 상품개발 박차 디자인센터 분소설치 인쇄업체 증개 역할

광주시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인근 충장로와 ACC등과 연계해 관광벨트를 조성해 사람이 붐비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서남동 인쇄거리에 '디자인센터 분소'를 설치해 인쇄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등 디자인테마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18일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쇄지원센터는 현대적인 감각과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나가기 위해 서남동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컴퓨터 교육 등 다채로운 특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윤보연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타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쇄업에 대해 사양산업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가 큰 포장개발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대 인쇄흐름은 갈수록 변화를 거듭하는데 기존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전망이 밝은 포장개발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이어 “농도인 전남은 농수산물 시장규모가 매우 크다. 이러한 농수산물과 맞춤형 상품패키지 개발을 한다면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서남동 인쇄거리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윤 센터장은 특히 “친환경 종이나 친환경 잉크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면서

“친환경 잉크인 소잉크의 경우 전국에서 3~4곳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인쇄업자들이 현장견학에 나서는 등 정책적인 제안 통해 사업과 연계에 현재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쇄전문가들은 서남동 인쇄 거리에 사람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장로와 양림동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시급히 조성해야 지적했다.

광주대학교 디자인학과 차국환 교수는 “중국관광객들이 금남로 일원을 많이 찾는다”면서 “황량한 서남동 인쇄 거리에 커피숍과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이 쇼핑과 특화된 거리를 돌며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붐비는 거

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특화교육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감각을 같이 길러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 “차라리 서남동 인쇄거리 중간지점에 디자인센터 분소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디자인업체 인쇄업체를 매칭해주는 센터를 조성해 입주분위기 등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서남동에서 30년째 인쇄 업체를 운영 하는 김모씨는 “현대인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야 하지만, 현재 서남동 인쇄업자들도 일부 사람만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 고 생각하

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지난달 어음부도율 1.04% 상승

광주·전남지역 2개월 연속 부도액 급증

■한은 광주본부 '3월중 어음부도 동향'

지난 2월 광주지역의 한 전산업체에서 발생한 '특이부도'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부도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내놓은 '2018년 3월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어음부도율은 1.57%로 전월(0.53%)에 비해 1.0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특이부도를 제외할 경우 어음부도율은 0.14%로 전년도 평균(0.20%)보다 낮았다.

광주는 지난 2월부터 지역의 한 전산업체가 발행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매우 큰 금액의 어음이 교환에 회부되며 어음부도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전월에 비해 광주지역은 2.02%포인트 상승(1.96% → 3.98%, 특이부도를 제외할 경우 0.37%로 0.02%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남은 동일(0.00% → 0.00%)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부도금액(사업체 기준, 개인 제외)은 405억8,000만원으로 전월(166억8,000만원)에 비해 239억원 증가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224억5,000만원), 제조업(14억7,000만원) 및 건설업(2억2,000만원) 등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 업체 수)는 4개로 전월(1개)보다 3개 증가했다. /서미에 기자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수강생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민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지원 교육프로그램인 G-태그(G-T.A.G.) 스쿨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4기 프로그램은 순천 동천을 주제로 ▲제품 사진 찍기(투어) ▲네온액자 만들기(아트) ▲하이퍼랩스 영상(가든) 총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 40명 내외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https://onoffmix.com/event/134917>)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각 과정별로 상이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2-337-25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사학연금, 제2기 고객정책자문단 출범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열린혁신의 일환으로 연금제도 운영정책 결정을 놓고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2기 고객정책자문단을 출범했다.

금수급자 20명으로 구성된 제2기 고객정책자문단은 밴드 엠,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11월 말까지 활동을

펼치며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선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사학연금은 고객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결정과 연금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고객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나라 기자

중·도매인어울림 한마당

농협광주공판장, 농산물유통 선도 다짐

농협광주공판장(사장 김 훈)은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공판장 전 직원과 청과 및 채소중도매인, 협력업체 종사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공판장·중도매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도매인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년 연속 화합과 소통을 통한 농산물유통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과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강좌와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행복한 웃음과 소통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중도매인들은 "올해는 더욱 더 하나 되는 자리가 됐다"면서 "날마다 웃음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물론 농산물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에 기자



농협광주공판장은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공판장 전 직원과 청과 및 채소중도매인, 협력업체 종사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공판장·중도매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지역상생 동반성장 ‘쇼핑 1번지 우뚝’”

산지판매 경제 활성화 기여...지역 대표기업 자리매김

■광주 신세계 창립 23주년

지난 1995년 광주현지법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사진)가 지역법인 설립 23주년을 맞는다.



1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95년 설립 이후부터 '지역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기본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직원복지향상에 힘쓰며 지역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광주신세계는 올해도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달 열리는 '중소기업위크'의 유통상담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광주신세계에서의 판촉홍보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동리단길'이라 불리는 동명동 카페거리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시민 육성과 문화도시 광주의 발전을 위한 문화후원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현지바이어 제도를 통한 지역 산지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초기부터 현지바이어 제도를 통해 호남 지역의 산지와 생산현장에 직접 찾아가 산지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광주현지법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광주신세계가 지역법인 설립 23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전경.

지난해 지역산지 직거래를 통해 15억 가량의 신선식품(농·축·수산)을 매입했다. 이는 전체 신선식품 매입액의 80%에 달한다.

KTX와 SRT를 통해 2시간 내 수도권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넓고 쾌적하며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점포로의 고객 역외유출 역시 증가하면서 광주신세계는 최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유명 브랜드를 계속해서 신규 입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멜라라나', '시코르', '입생로랑' 등 차별화된 브랜드의 적극 유치를 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시코르'의 경우 주요 고객층인 20~30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순한 화장품 매장이 아닌 지역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 신세계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월 2일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주 35시간 근무제로 지난해보다 10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줄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협력사원에 게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월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최초의 지방 점포이자 현지법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작부터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민들이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줘 현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원 복지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제 52 회
진남호국문화

이충무공의 얼,
여수밤바다에 물들다!

여수 거북선축제

Turtle Ship Festival

2018. 5. 4. (금) ~ 5. 6. (일)
종포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웅천, 선소 일원

첫째 날
고유제 / 통제영길놀이 / 개막식 / 대동한마당

둘째 날
용출다리대회 / 전라좌수군후예
청소년 댄·송세스티벌 / 전라좌수영해상수군출정식

셋째 날
해상불빛퍼레이드 / 거북선가요제

부대행사
임진왜란유적지순례 / 체험행사 / 먹거리체험 등

◆주최 :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주관 : 제52회여수거북선축제위원회 ◆후원 : 여수시